

지역 소식통

고창소방서, 전기화재 주의 당부

고창소방서는 여름철에는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로 다른 계절보다 전기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창 지역에서 발생한 377건의 화재를 분석한 결과 54건(14.3%)이 전기적 원인이었고 전기화재는 장마철을 비롯한 여름철에 발생률이 높았다.

여름철에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생성된 많은 습기가 전선의 먼지에 스며들어 전기가 흐르는 불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전이나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냉방기 사용량이 늘면서 과부하와 사용상 부주의에 따른 전기화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용일 지휘조사팀장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전원을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누전차단기를 점검해서 전기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귀농귀촌학교 운영

2017년 제2기 정읍시 귀농귀촌학교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정읍장학사에서 열린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귀농귀촌학교는 경기·수도권 일대 귀농귀촌 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이달 16일까지 총 100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영농 기술교육을 비롯 귀농귀촌 관련 농업지원 정책 소개, 귀농 성공 선도농가 체험 등 다채로운 현장 교육으로 진행된다.

예비 귀농인들은 31일 정읍으로 내려와 농기계 조작 등의 현장체험을 갖고 있다. 2일까지 귀농선배들의 영농체험과 품목별 재배 기술은 물론 실과와 성공 사례를 듣고 농기계 이론과 실습교육에도 참여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감곡면, 기상정보 서비스 호응

감곡면이 전주기상지청과 함께 '뜰에서 풀'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뜰에서 풀' 기상서비스는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기상관측과 예측 정보, 기후 분석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전달해주는 현장 맞춤형 기상기후정보 서비스이다.

매일 오후 5시에 1주일 단위의 기상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휴대폰 문자로 제공하는 것.

주민들은 "영농현장에 필요한 기상관측 정보와 기후 분석 정보 등을 휴대폰 문자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어 영농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소

금연 환경 만들기 '앞장'

'세계금연의 날' 맞아 포스터 공모전·홍보 체험관 등 운영

정읍시보건소가 제30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를 가졌다.

금연의 날을 계기로 흡연의 폐해와 유해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금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취지다.

먼저, 금연 포스터 공모전을 가졌다. 공모에는 8개교 43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은 김민선(정읍초등학교 4학년) ▲우수상은 김우선(정읍초등학교 4학년), 유나(신태인초등학교 6학년) ▲장려상은 김지은(정읍초등학교 6학년), 이혜진(덕천초등학교 6학년), 유창수(덕천초등학교 6학년) 군이 차지하며 시상장을 받았다

수상 작품은 초등학교 등교 시간대 전지 등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소는 지난달 31일에는 중앙로 만남의 광장에서 금연 홍보 체험관을 운영했다.

이 곳에서는 폐 모형과 금연 포스터



우수작 등을 전시하고 CO 측정, 금연 상담도 진행했다.

보건소는 시가지 캠페인에 나서 시민들에게 금연 홍보물을 나눠주며 금연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한편 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 일환으로 금연 클리닉 상시 운영과 함께 이와 별개로 담배 연기 없는 사

업장 만들기 이동 금연클리닉을 시시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는 이와 관련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과 사업장, 관공서, 복지시설과 단체에서는 보건소(건강증진과, ☎539-0082)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식중독 사전예방 나서

집단급식소 대상 식중독예방 컨설팅 실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식중독 사전예방에 나선다.

특히 식중독 발생 확률이 높은 집단급식소 56개소(학교급식소 23개소 포함)에 대해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교육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식중독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식품의 원·부재료 보

관상태, 유통기한경과제품 진열·보관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등을 점검하며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ATP검사(세균오염도측정)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역 내 집단급식소에 보급한 식중독예보지수 일일판을 올해는 학교와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19개소 급식소 내에 추가 설치해 매일 급식소 관계자와 종사자들이 식

중독발생지수에 대한 사전정보를 받아 급식관련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 식중독균 증식이 빠르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위생적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관내 20만9712필지에 대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1일 전했다.

결정된 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 상황은 지난해와 대비해 평균 6.2%가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그동안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과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 등의 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또한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시장정보 앱'을 통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고창군 토지관리팀 관계자는 "인터넷 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별도로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을 통한 지가 열람과 전화 문의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 주산면 직원들

농촌일손돕기 활동 '구슬땀'

본격적인 오디 수확철을 맞아 1일 부안군 주산면 직원 13여 명이 일손이 부족한 오디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직원들은 주산면 덕립리 신공 마을에 위치한 이삼 구씨 농가를 찾아 무더운 날씨에도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열거를 없이 작업에 속도를 냈다. 특히 직원들은 오디 따기를 도우면서도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 등 소중·공감·동행 행정을 실천하였다. 이삼 구씨는 "일손부족으로 오디

따는 시기를 놓쳐 농사를 망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무원들이 적극 도와줘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일손을 도와준 부안군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부안 오디는 4월중 초록색을 띠 열매가 맺힌 뒤 붉어지다가 완전히 익으면 흑자색으로 변하는데 5월말부터 6월말까지 수확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보건소, 음식점 위생 등급제 홍보

정읍시보건소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알리기와 정착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 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중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위생 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 안전처나 시·군·구에 희망하는 위생 등급을 지정

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기관은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 등급을 지정해준다. 시는 우선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오는 8월에는 일반 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시 음식점 위생 등급제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하계방역 소독 실시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계속 되는 가뭄과 연일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하자 부안읍행정복지센터(읍장 조용환)가 하계방역 소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부안읍 행정복지센터는 1일부터 감염병 유행 및 질병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고 위생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역을 실시한다.

더욱이 6월과 9월에는 초미립자 약제살포기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해충이 많이 번식하는 7,8월 휴 서기에는 연막소독을 집

중 실시함으로써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농어촌 외곽지역 및 마을 학교 주변, 하천변 하수구 주변 쓰레기처리장, 축사 인근 등 취약지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방역을 할 계획이다.

부안읍 담당자는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위생적이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gift set,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명주',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The ad lists various gift sets with prices and quantities.